**1과. 모든 전쟁의 배후(근원)인 전쟁. 2024년 4월 6일**

1. **분쟁의 시작**
	*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(창. 3:1).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하신 생물들 사이에 불신을 퍼뜨리는 자를 “원수”라고 부르셨고, 마귀라고 밝히셨습니다 (마 13:39).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하셨나요? 하나님께서 악한 존재를 창조하셨을까요?
	* 성경은 마귀가 루스벨이라고 불리던 천사였다고 말합니다(사 14:12). 그는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(겔 28:12). 루스벨은 다른 천사들이 원하는 가장 높은 지위, 즉 (법궤를) 보호하는 그룹 천사였습니다(겔 28:13-14).
	* 성경은 마귀가 루스벨이라고 불리던 천사였다고 말합니다(사 14:12). 그는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(겔 28:12). 루스벨은 다른 천사들이 원하는 가장 높은 지위, 즉 (법궤를) 보호하는 그룹 천사였습니다(겔 28:13-14).
2. **하늘에서 일어난 반역**
	* 하늘 보좌를 빼앗으려는 욕심으로 가득찬 루스벨은 다른 천사들을 선동해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 다스리시는가? 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(그들은 생각하기를) 우리 모두가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굳이 가혹하고 부당하거나 변덕스러울 수 있는 법에 복종해야 하는가?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
	*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의 태도를 뉘우치라고 거듭 말씀하셨지만 루스벨은 그때마다 모두 거부했습니다.
	* 이렇게 시작된 반란은 더욱 커져 모두에게 알려졌고 천사들이 각자 자신의 운명을 선택해야만 하는 전쟁으로 번졌습니다. 천사들 삼분의 일은 사탄을 따랐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(계 12:4).
	* 오늘도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사탄은 지금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려 합니다. 모두 두 무리로 나뉠 것입니다.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려는 사람들과,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. 이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(신 30:11, 16, 19; 수 24:15).
3. **지구에서 일어난 반역**
	* 하나님으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죄 없이 완전한 환경에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(창. 1:31).
	*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고 아담에게 단순한 명령을 하셨습니다: “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” (창. 2:17).
	* 사탄은 교활하게 아담과 하와를 속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분의 명령을 어기게 했습니다 (창. 3:6, 9-13, 19). 아담은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었고 모든 사람은 죽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(롬 5:12). 우리 모두가 아담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일까요?
	* 우리는 각자 자신의 죄값을 갚아야 합니다. “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”(롬 3:23).
4. **사랑의 반격**
	*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를 알려 주시기 전에,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구원할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(창 3:15).
	* 사람들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 갔지만,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배반한 자녀들을 내버리시지 않고, 믿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분의 진짜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(요 3:16).
	* 죄인은 결국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(우리의)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(롬 5:8).
	*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
	*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 한 방울 한 방울은 “나는 너를 사랑한다” 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.
5. **오늘날의 분쟁**
	* 오늘도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(하나님께)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다 (히 9:24; 7:25).
	* 십자가에서 흘린 자신의 피를 가리키시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우주 주민들에게 우리를 의롭고 완전한, 하늘나라에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십니다.
	*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엄청난 응원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(히 4:15-16).
	*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(요 14:13-14). 우리가 무서울 때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고, 죄로 눌려 있을 때 용서하시고, 연약할 때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.
	*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사시는 것입니다 (요 17:24).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까?